

## 그리스도인 04.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전 의로웠는가?

Christian 04. Were Christians righteous before they were saved?

1. 그리스도인은 다른 죄인들보다 의로워서 구원받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전, 죄인이었다. 성경기록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가르친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 여기서 **모든 사람(all)**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로마 가톨릭이 숭배하는 마리아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이나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추앙받는 사람들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 죄인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셨느니라.(롬 5:8)

• 성경기록은 구원받기 전, 우리가 의인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while we were yet sinners,)**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한다.

2. 죄는 무엇인가?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이는 죄가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요일 3:4)

• **율법(the law)**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준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담고 있다. 율법(십계명)은 모세를 통해 글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의하면, 모세의 십계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도 이미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하도록 만들어졌다(롬 2:14). 비록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각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록된 율법(the law written in their hearts, 롬 2:15)**이 있다.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본성적으로 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태어난다. 그것이 죄 가운데 수태된 사람의 모습이다.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떠함이 입증되는 것처럼, 사람은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로 그 스스로가 죄인인 것이 입증한다.

•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니라.(요일 1:8)

• 또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선언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해서 죄인이라고 선고하시며 우리 죄 때문에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같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니라.(요일 1:10)

### 3. 오늘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 다른 하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용서받은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시지 않는다. 설령 그 자신이 부족해서 죄인이라고 고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 신분상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말이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정죄 받은 죄인으로 성경기록에 의하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다.

• 시편 1편 1절에서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꾀를 따라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시 1:1)라고 말씀했다. 이 구절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the ungodly)**은 죄인들을 가리키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말한다.

• 시편 1편 5절에는 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결말**에 대해 말한다.

그러므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심판 때에 서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로운 자들의 회중 안에 서지 못하리로다.(시 1:5)

• 그들은 심판 때 서지 못한다. 그들은 **죄인들(sinners)**로 분류되어 결국 **의로운 자들(the righteous)**과는 따로 있게 된다.

• 시편 1편 6절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말한다.

이는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로다.(시 1:6)

• 여기서 **의로운 자들(the righteous)**은 **주의 율법을 존중하는 자들**이다(시 1:1). 반대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the ungodly)**은 **주의 율법을 무시하면서 사는 자들**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로운 자들이다.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전, 자기가 죄인이었다.** 의로워서 구원된 것이 아니다.

※ 사용된 성경 텍스트는 KJV 영어성경에서 번역한 근본역이다.